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4호 [루게 제23256호] 주제99 (2010)년 10월 31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에쉴트정계인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 전 중국인민지원군 로병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따기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애쉴트정계주방 부위원장 유세프 아민 알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들이 25일 애쉴트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앞에 전달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종중운의 딸 풍영과 전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사보현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들이 25일 중국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앞에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과 선군혁명령도

### 나이지리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선군혁명령도》라는 주제의 연합토론회가 19일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로동당의 백송의 련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는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소 전군위원회, 김정일주의연구소, 주체철학연구소, 선군정치연구소, 자력갱생연구소, 선군원들과 아부자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소 전군위원회 위원장 영. 알. 알. 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라는 제목으로 기조 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연합토론회를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9월 28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조선인민이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들이 25일 애쉴트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앞에 전달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기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

### 연합토론회 진행

김일성주체의 당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우리 민족거리의 리념과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정책》, 《선군정치와 조미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아부자종합대학 정치학부 교수 위원장 아부바카르 은다누사는 조선로동당을 생각할 때 김일성주체의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당권 설립적지를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체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조국통일전쟁의 국제정세속에서도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명도하고계신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에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장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기다.

아부자종합대학 정치학부 교수 아부라흐만 하부 하미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라는 명언을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전력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나라에서 온갖 경제적인관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민적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부자종합대학 정치학부 교수 부하리 무하메드 벨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방정에서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간주하고계신다.

이제까지 제시하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선의 북남관계발전의 기로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통일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현실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해주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만 한다.

주체철학연구소 조위원장 아바사디크 아부바카르는 조선반도에서 통일하게 벌어지는 조선대결과정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력을 실감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인공위성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선군정치야말로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정치이다. 머지않아 조선은 강성대국으로 빛날것으로 확인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0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일회고령도자께서 26일 회창군에 있는 지린군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들과 함께 회창군에 있는 모안영렬사묘와 지린군렬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훈과 공적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지린군렬사묘에 발원한 고결한 희생정신과 전투적의용의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전 지린군렬사묘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국당과 정부를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라고 조직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조선인민의 정의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갖 창건된 직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인민에게 물심양면으로 사심없는 지원을 준것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산모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추억하시었고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나라의 《해방군보》, 《신화매일진》, 《광명일보》, 《베이징일보》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한편 중국의 《연변일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성정된 가국 《항상백과 축영대》를 편람하신 소식을,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뉴스. 루. 타이신문 《망크로 포스트》, 영국의 로이터통신, 이탈리아의 안사통신과 아취통신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제스프주제사상연구소 및 구진호와 백두산사포조선전선협회 인터넷포럼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이 소식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을 접견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모든 전선에서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자

###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

#### 각 지 당 조직들에서

한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벼단깨틀기기와 날알깨틀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날알이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줄을 가득 채워갈 일념밑에 목표를 높이 세우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뛰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며 농업근로자들을 불리일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당원들께서는 불붙는 포전에서 그들의 심리와 정황에 맞게 화신적정지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추동하는 정치사업이 대중의 심정에 불을 다는 도화

선이 되게 화신적으로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시기 전에 대중을 불리일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시, 군들과 농촌당조직들에 내려보내어 전투현장에서 화신적정지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하였다.

시, 군들을 맡고 내려간 도당위원회일꾼들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돌리는 현상으로 옮기고 대중에게 들어가 그들을 새로운 혁신에 불리일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화신적으로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한해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당원들이 방축미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여도 대중의 심정이 광활 울리게 격조높이 하여 평범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폭발되게 하여야 할 때이다. 도안의 농촌당조직의 당원들께서는 포전이 들썩하게 방축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여 들끓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방축미이크를 잡고 격동적인 선동열설로 대중을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당원들이 벌려나가는 화신적정지사업에 고무된 연안군, 승호군, 상원군간의 농업근로자들은 도적으로 벼가울을 제일먼저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벼단깨틀기기와 날알깨틀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강원도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감회력이 큰 예술선동형식의 화신적정지사업으로 농업근로자와 지원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불리일시키기 위한 예술선동활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격시과 틀을 없애고 함일규격대식으로 벌려나가는 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에 고무된 통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벼단깨틀기기와 날알깨틀기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높이 세운 일심단결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강사들을 불리일시키고 온 도에 농사중시기풍, 농촌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목적밑에 도당조직의강연강사들과 시, 군의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을 망라한 집중강연

선동대를 조직하였다.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현장에 펼쳐보이는 이들의 집중강연선동대활동은 참으로 격동적이며 서도 실효과가 대단하다.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높은 강연선동대활동에 고무된 재명군, 연안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불내어롭게 팔출려 가곤 농작물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줄을 가득 채워갈 일념안고 일손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농업근로자와 지원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실정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화신적정지사업을 박력있게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 각지 당조직들과 농촌당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일본래에 의하여 벼단깨틀기기와 날알깨틀기 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생산성과 확대

####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계급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파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안고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밀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리는 선물들이 25일 애쉴트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앞에 전달되였다.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한 대상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한 기세로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10월의 대추전을 자랑스럽게 빛낸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동원투쟁을 벌리고있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나가 조직정지사업을 참신하게 진행 하고있다.

유압기구제작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모신것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 회전 절리틀이 커다란 은을 내

며 하는 한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가공중성반들을 우리 식으로 기술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직장의 가공1작업반원들은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설비에 정통하기 위해 아글라라 에세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유압식공작기의 중요부분용형타공과 산소분리기 라인생산기조립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형조기제작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골짜기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합리적인 조립기장조들과 공구들을 받아

들어 생산능률을 부쩍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장백》호를 착기들의 대형부속품과공과조립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련관단위 로동계급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 식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질적으로 조립완성할 드높은 열정으로 총동원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열정과 투지로 가슴 불태우며 펼쳐나선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산소분리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여 어머니 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을 마련한 자랑스런 안고 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신호왕철제작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이 안겨

##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 경성도자기공장에서

경성도자기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빛내인 자랑을 안고 중성투쟁의 불길줄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중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24일까지 공장에서 5년 단기간계획을 지시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년초부터 도자기계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

을 합쳐 석고생산공정을 밀레식으로 개조하여 석고분쇄율을 2.5배로 높이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화지생산기지와 로력성능을 자기의 힘으로 꾸렸고 회진조 기계를 트런기도 제작하였다. 경제지표생산공정을 보다 완비하고 로력성능지수성로를 자자운도중성장치를 설치하여 소성로의 열효율을 높이고 도자기소성방법의 과학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성형직장에 가세제 거용배풍기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유약을 새로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수입금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반영하였다.

#### 원산통신케블공장에서

지금 공장에서는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이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케블작업반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심신전투기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철연선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연선작업반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기술발명에서 찾고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생산전



승리의 신심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평양안광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희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어 존엄높은 당

위대한 향도의 빛받아 승리를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 나라 천만민족의 불굴의 기상 이란가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는 우리의 당기가 펄럭 휘날린다.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는 성스러운 조선을동당의 당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의 모든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의 끝없는 환희가 새겨져 나뉠기는 당기와 더불어 조국강산에 차넘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였습시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영광은 환희속에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추억은 참으로 뜨겁다.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명도로 근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김일성조선의 장성민영을 확고히 담보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최대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영성불변의 주체사상을 전진적으로 발전분류화시키시여 당과 혁명, 자주시대의 진로를 밝히는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어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고 선군혁명명도로 강성민영의 세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정치가, 걸출한 명도자이시디.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놓였던 지나온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면서 당의 위대한 명도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특출하고 비범한 정치실력을 심장으로 절감하셨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직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룰 때에만 전진, 전군, 전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면서 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균중을 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거들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난관이 우리 혁명의 전진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던 때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간 협을 합치면 그 어떤 천수와 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중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수 없다고, 이런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바로 여기에 백두산군대에서 우리 당의 튼튼한 뿌리가 내리고 주체혁명명도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졌으며 강성대국의 만년대계가 있음을 뚜렷이 밝히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이 집대성되어있다.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했건인가를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

지난 기간 세상사람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당이 군대를 떼놓고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가슴아픈 사실을 목격하였다.

제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당의 명도자가 혁명군대의 지휘와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역사적교훈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끊임없이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위대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한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에는 적들의 총구가 초사리고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의 초사리고있고 눈덮인 가파로운 칼바람길도 있었으며 파도사나온 바닷길도 있었으니 그 길에서 겪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어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명절의 하루를 보냈시였다.

뜻깊은 그날 병사들을 찾으신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었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혁명의 총대로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실 절대불변의 신념이요 의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로 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불패의 것으로 다져지고 이 땅우에는 강성민영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지극치럽 내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또다시 성과적으로 날아오르고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있으며 크나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체적인 CNC공업, 날을 따라 펼쳐지는 우리 조국의 선군간장과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자랑스럽게 일떠서는 오늘 현실이다.

그것은 정령 위대한 선군정상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견고히 선 선군혁명전진로길은 그대로 우리 당의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며 그이께서 남기신 거룩한 자욱자욱은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명도사에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대의 위인,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것을 자랑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을 크나란 자랑스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고가리라는 굳은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것이다.

주체혁명의 심장이고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 주체혁명위업의 현신의 길에서

력사문화유적들은 나라의 재보

멀 헤 전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경남도를 현지도하시는데 바쁘신 속에서도 정광사를 돌아 보시였다.

리원군 원사리에 자리잡고 있는 정광사는 7세기 중엽에 건설된 오랜 건축물의 하나이다.

정광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유적보존관리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력사를 잘 알아야

어느 해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방문하신 첫 제품들을 보아주시며

탁자에는 《백학》 치약, 《봄향기》 비누, 《봄향기》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크립과 살결물들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민에 대한 미소를 지시시고 가까이 있는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새로 건설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이런

언제인가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안남도의 토지정리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에게 도의 토지정리기간을 더 연장하여 일군들이 끝내 대안과 과업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토지정리가 기본적으로 끝나가고있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며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애국열업인것만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토지정리에 손을 댄바에는 구석진 곳의 폐기는 들까지 번듯하게 정리하여 놓아야 후날 후대들로부터 로동당시대의 사람들이 토지정리를 정말 철저히 잘해놓았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민민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멋짐이 화장품이 나왔다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들으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새로 건설된 화장품공장에서 인민들의 생활에 향기와 기쁨을 더해줄 화장품을 내놓으시어 그러도 기쁘시어 보고 또 보시며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버이이다.

그러시면서 평안남도의 토지정리가 끝나면 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도들에 있는 폐기물들도 다 정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평에는 나라의 모든 토지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훌륭히 변모시켜 사회주의 홀콘건설에 쌓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시려는 숭고한 의지가 비쳐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김보자왕국 대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프놈 톨

김보자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폐하

나는 생일 88돐을 맞은 대왕폐하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김보자의 독립과 발전, 크메르민족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커다란 공헌을 한 대왕폐하를 저명한 정치활동가, 친근한 벗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고있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대왕폐하가 건강하고 행복할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0월 30일 평 양

# 풍부한 지식과 정서의 소유자들로

우리 병사들을 높은 정치적 식견과 문화적소양을 갖춘 선군문화의 창조자들로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도 마음쓰시는분 경애하는 장군님입니다.

주제 96 (2007)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를 시찰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으며 특히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확립하여 군인들을 풍부한 지식과 정서를

소유한 다방면적인 인간들로 키워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책을 생활의 길동무이고 사상이므로 누구나 다 열심히 탐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도서를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군인들이 읽게 하지만 그 보편편리를 잘해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인민군대에서 독서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적소양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고, 전군에 확립된 독서기풍은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혁명군대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풍조이며 군대에 넘쳐 달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시지침은 혁명군대의 위력은 본질에서 사상의 위력이며 사상사업은 떠난 대의 위력이란 생각할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중요한 계기 되었습니다.

본사기자

# 영원히 울려 퍼질 승리의 노래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다는 말이 있듯이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이 걸어온 투쟁과 창조를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할수 있다.

머릿전에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우리는 방송선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

태양조선 강해가니 존엄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 좋아  
아리랑  
장군님의 손길따라 주체강국  
나래한다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강성부흥아리랑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로 의하여 이 땅우에 펼쳐지는 자랑찬 현실과 그것으로 하여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며 참된 삶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정기를 흥겨우면서도 기백있는 시어로 생동하게 형성한 노래 《강성부흥아리랑》!

이는 감회와 정서를 한껏 불러일으키는 노래소리를 들어나

니 우리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시련과 난관을 파갈며 해쳐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우리 조국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무릉도원으로 가꾸어 가던 잊지 못할 나날들에 대한 추억으로 끝없이 설렷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에 대하여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말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그 누가 내 마음 울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비장한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견고결연의 철세의 위인의 그릇된 거룩한 자욱이 있어 내 조국 땅 이르는 가마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놓여 일떠섰다.

아리아리랑 삼여아, 고개넘어 저 멀리 백두산기슭 대동단에 가 보면 아득히 펼쳐진 포천마애에 기개높아노래소리 흥겹고 구수한 땅냄새가 흐듯하게 가슴에 울려나온다.

스리스리랑 강군너 들지나 저 멀리 강변도로부터 평안북도 황해남도에도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드넓은 평야가 팔간데 없이 펼쳐져있고 지난날 눈물의 아리랑속에 풀푸러바구니를 아고 넘나들던 언덕길로는 아득히 뻗어간 청춘과원의 과일향기 그윽하게 풍긴다.

그러나 어찌 태양조선 강해가니 존엄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 좋아 아리랑의 노래가 태어나지 않을수 있랴.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맹세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질 승리의 노래이다.

하기에 오늘날은 나라 천만군민모두가 노래 높이 부르며 대혁신, 대비약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데 아닌가.

그렇다.

노래에도 있듯이 일심으로 뭉쳤으니 두뿔없고 칠벽으로 닦았으니 끄떡없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머지않아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누리에 더욱 빛날 것이다.

본사기자



회상기학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백혈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고 있다. (한강대우공장에서) 리진명 찍음

#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

적들은 이제까지 거머쥔은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2,000명에 달하는 대부대를 동원하여 세계 방향에서 은밀히 기어들이 어랑촌유격근거지를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그 령명은 무려 우리의 25배에 달하는 대병력이었다. 그 가운데는 수십개의 박격포와 척탄포 등으로 무장한 전의 최정예부대의 하나인 불철 정안군 1,000여명도 있었다.

적들은 이들을 리용하여 불의의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유격대를 단숨에 《소멸》하려고 망상했다.

어두운 밤중에 은밀히 기어들었던 놈들은 날밤기 전부터 수심문의 박격포로 발파적인 포사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적란은 근거지인 팽 어디에나 무질서하게 날아와 버렸다.

우리 유격대가 차지한 고지우에도 떠돌아 다녔다. 나무들이 부러지고 돌가루, 흙먼지가 날리는 고지는 금시같이 막힐듯 하였다.

적들의 포탄이 터지는 이면 속에서 우리 동무들은 진지를 더 튼튼히 꾸리고 한편으로는 커다란 물들을 더 많이 모으고 나무들을 진호가에 밀어올리며 저마다 걸사적인 각오로 싸움을 준비하였다.

적들이 돌을 쓰며 발파할수록 우리 동무들의 가슴가슴에는 멸적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게 타올랐다.

우리는 일제놈들에게 강철된 조국을 생각하며, 철뿔과 굴뚝처럼 탄압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을 생각하며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결의로 싸움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비록 우리가 가진 무기는 얼마 안 되는 구식보총뿐이라 할지라도 최후까지 싸울 높은 혁명적각오로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돌과 바위를 갈려내어 놓았다가 적에게 일제사과와 함께 무서운 돌벼락을 안기려는 우리 동무들의 열광마당에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아려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한동안 발파하던 포사격이 멎더니 적들은 여기저기 고지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고지우에서 아무런 인적도 내지 않고 긴장하게 적들을 쏘아보았었다.

고지에서 적강고음이 울려퍼졌다. 불이머져 쉼 없이 터져오는 소리와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경사면의 돌들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점점 더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놈들은 포사격의 위력으로 우리가 미처 손도 못쓰고 《소멸》되겠으리라 생각하였던지, 또는 수량상 우세를 믿고 그랬던지 기관총을 어대고 휘둘러쓰다가는 계속 고지우로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놈들의 거동은 추시하고있던 우리 동무들이 일제히 합성을 울리면서 전호에서 일어났다.

《동무들! 원수놈들을 모조리 죽 쳐버리자!》

불에 일어나는 함성에 절절해서 머리를 쳐들고 머리동떨어는 놈들에게 우리 동무들은 사기충천하여 힘껏 돌을 뿌리고 바위를 굴려서

하여 비행기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뜰까지 앉고있었던 것이다.

적들의 공격이 멈춰진지 약 두어시간가량 되었을 때에 적비행기 2대가 서서 떨어지를 두고 나타났다.

가장스러운 적비행기는 유격근거지 상공에 날아오며 차차 낮게 들려나 시꺼먼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떨어지는 그 물체는 1세대 동무들이 있는 무릉고지에 내리꽂힐것처럼 느껴졌다.

《폭탄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얼드리로.》

《전호안에 얼드리로.》

아직 비행기와 투쟁경험이 없지는 우리 동무들이었다. 그래서 적 폭탄의 위험이 어떤지 모르는 우리 동무들은 전호에 얼드러서 가슴을 들먹이며 적기들을 긴장하게 쏘아보았다.

바로 머리우에서 《쇼!》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순간 고지를 뒤 흔드는듯 한 《파르릉!》, 《파르릉!》 하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 동무들은 그 소리가 난폭을 살피며 자리에 서 있었다.

1세대 동무들이 있는 무릉고지우에 떨어질것만던 적의 폭탄 2개가 다 산중턱에 떨어졌던 것이다.

두번째 높이 날아와 떨어뜨린 폭탄도 내려올 때는 꼭 고지우에 떨어지도록 기다리던 것이다. 고지우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난폭을 살피며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동무들의 사격이 분산적이었



# 선군조선의 기상떨치며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간다

## 희천 2호발전소 언제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 총공격전의 불바람 휘몰아치는 전투장

희천 2호발전소 언제건설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뉘고있다. 당장 65층을 승리자의 대승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승리와 자랑을 안고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언제건설완공을 위한 마지막총공격전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최근 한달동안에만 10여만㎡의 콘크리트를 진행하는 전례없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언제건설을 올해중에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양양된 기세로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드시한번 선방에 높이 떨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희천발전소 건설정형을 여러차례 로해하시고 빠른 기간에 언제건설을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시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애국의 열정과 떨쳐나선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과감한 공격전을 벌이며 언제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지휘관들과 사관들, 병사들이 이르기까지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언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불같은 열정이 차려지고있다.

부대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언제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리우고 있다.

부대지휘관들은 타임전선들이 언제건설까지에 전개된데 맞게 혼합물운반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하기 위한 작전을 펼쳐나갔다. 그 과정에 자동차에 의한 혼합물수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물동수송방법들이 나와 운반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부대에서는 골재와 혼합물운반에 중기계를 증강하는 한편 자동차들에 대한 배차조직도 기술적으로 하여 운전기제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있다.

지휘관들이 펼치는 면면한 작전과 활발히 벌어지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군인건설자들이 타고앉은 언제건설장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타임전투로 세차게 옮겨지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드넓은 결의를 안고 떨쳐나선 조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첩관로제작용과 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언제중심구간에 대한 콘크리트기공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이곳 지

휘관들은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고 군인건설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콘크리트기공의 질과 속도가 다같이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혼합물운반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자력경쟁의 기치 밑에 신발기,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단가중, 만부하를 믿을직하게 보장함으로써 매일 수천㎡의 질풍은 콘크리트혼합물을 생산하여 공사속도를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3월 25일 청년들격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자랑한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이미 많은 공사과제수행에 있어 높은 시설을 올린 김홍범, 김주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그들은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언제우에 전개한 굴착기로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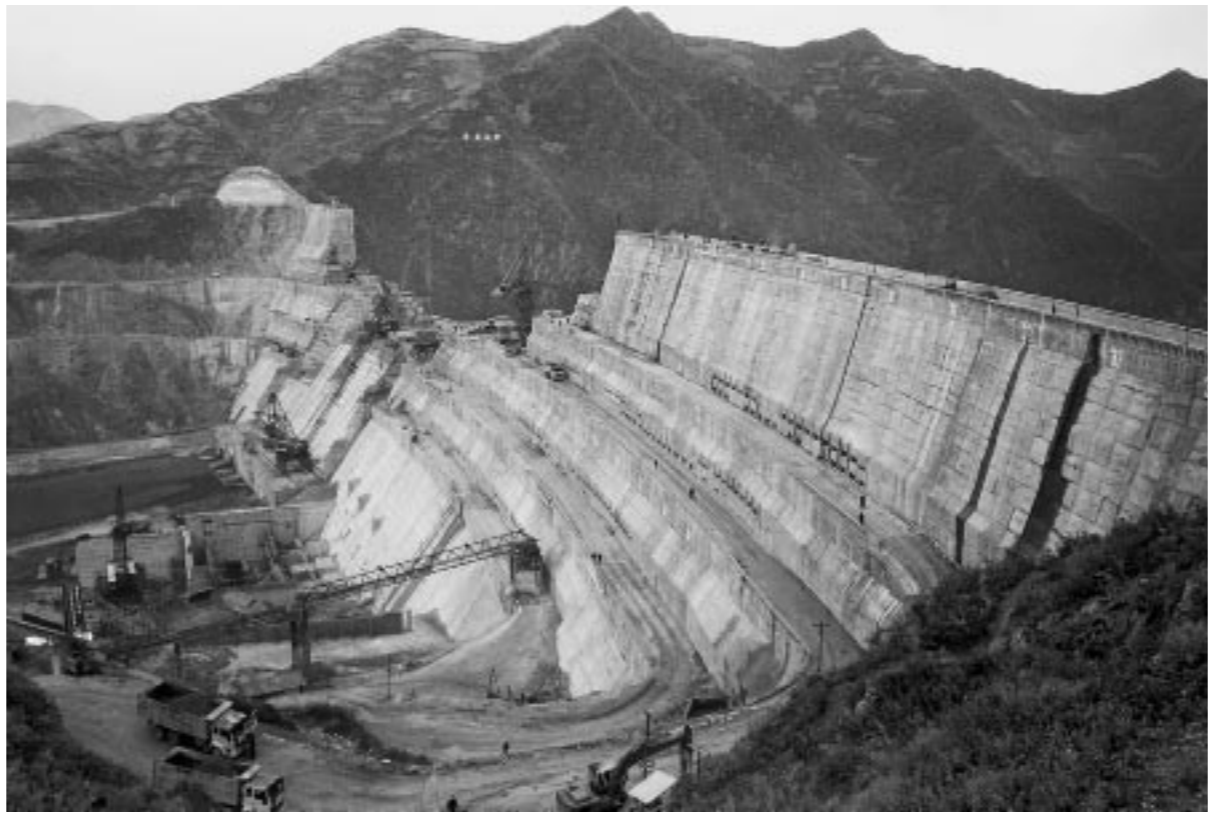
물운반과 다짐작업을 진행하여 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수송차 건설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수송부문의 군인건설자들도 적극 분발해나가고있다.

장영수소속부대의 자동차운전사들은 운반조건이 불리한 속에서 물동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튼튼기제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낼

으로써 그 실동률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곳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씨우는 고지에 포탄을 실어나르는 심정으로 매일 경사급한 운행길을 없없이 달려 골재와 세멘트를 송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대의 군인가족들도 발전소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원호사업을 성의있게 함으로써 군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엔제코리치기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구조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신적인 방안들도 적극 연구도입되고있다. 하루빨리 언제를 일떠세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려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희천 2호발전소 언제는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고있다.



는 그들이었다. 문명청동무는 그들과 함께 안전대책을 세우고 싸이로안에 들어갔다. 캄캄한 싸이로안의 높은 열로 하여 온몸은 순간에 팽팽성으로 되었다.

바를 휘둘러 매고 벽에 기대어 한치한치 굴어간 세멘트를 조심조심 떨어내던 문명청동무가 열을 들어 보는 순간 세멘트뚜껑이 금이 쏘는것이 아닌가.

《미끼라!》 번개같이 몸을 돌려 뒤따르던 한일민동무를 헐것 밀쳐버린 그는 허리까지 세멘트에 묻히게 되었다.

세멘트가루가 훑날려 작업조건이 불리하였지만 그들은 또다시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일떠세 부딪친 난관을 끝내 극복하고자말았다.

평시에 말이 없고 눈에 또 별로 띄지 않던 그들이었다. 허나 말려진 파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리실수 없다는 자각이 위험한 순간에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된것이였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이렇게 순간순간을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 붙들며 투쟁하고있다.

어제 이틀뿐이라. 구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두가 이런 결사의 의지로 언제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보장하고있다.

오늘도 이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불같은 마음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 공사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 나를 따라 앞으로!

조선인민내무군 김홍범소속부대 공관 옥기남동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는 청년들격대 대장으로 공사장에 달려온 첫날부터 대담한 작전과 지휘, 완강한 실천력으로 언제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어느 한 도리건설에 가파른 정점으로 끌어올린 기증기가 지지자 그는 제일먼저 어깨를 들어대며 대원들을 이끌어나갔다. 굴착기가 고장났을 때에도 그는 최선시도의 공상, 기업소들이 나가 로동자들을 불러모으켜 부속품을 깎아모으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그가 한 용접은 좁잡음에없이 미끈하다. 언제나 혼합장지트라스조립공사를 진행할 때에도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끝냈다.

그는 첩관로조립공사에도 능란한 기술능을 발휘하여 용접을 질적으로 해함으로써 공사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소문난 용접공

희천 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에 가면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자랑하는 용접공이 있다. 그가 바로 조선인민내무군 조정남소속부대의 김동현동무이다.

발전소언제건설에서 지금까지 그는 많은 용접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꽃피우 한민조선이 지난해 건설에서 나온 그는 굴착기운전자가 될것을 결심하고 오랜 운전공력으로 굴착기의 구조와 작용원리 등 운전기술을 배워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콘크리트기공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여 혁신자로 소문을 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옥기남동무 김동현동무 리경희동무

### 현지보도

####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단 목표를 내건 다음에는 오를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고 꿰뚫어대며 끝까지 해제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들의 물결이 내려다보이는 언제건설에서이다. 지금 여기서는 조선인민내무군 김홍범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언제중심구간에 대한 콘크리트기공을 진행하고있다.

신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울리는 방송선전자의 격동적인 노래소리에 어울려 타임전투의 굴착기들과 진동기의 웅음이 공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우어준다.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건설투쟁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고조되어온다. 만전을 실은 자동차들이 연방 들이닥쳐 드넓은 타임장에 혼합물을 쏟아 바르며 굴착기

가 다짐작업을 할수 있도록 혼합물을 공급해주었다. 자동차로 날라온 혼합물을 바가지에 담아 들어올리는 굴착기의 작업속도도 불만 하지 못하지만 진동기를 저마끔 틀어잡고 혼합물을 다져가는 타임공들의 일속은 더더욱 높을 것이다.

굴착기가 혼합물을 옮겨놓자 타임공들이 매를 기다린듯 속 편된 솜씨로 진동기를 혼합물속에 푹푹 박으며 일순을 하고그친다. 진동기를 능숙하게 움직일 때마다 혼합물속에서는 거품이 솟고 물기가 내뿜는다.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는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도 진동기를 틀어놓고 혼합물다짐작업을 하는 오영재, 리남수, 김광렬, 김기영동무들. 그들의 작업이 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겐 공관 정영수동무는 말한다.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일에 맹세하던 콘크리트기공을 보장하자면 콘크리트기공

도를 증진보다 2배이상은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천거된 작업과제를 다 수행하기 전에는 모두를 헌장을 떠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20일 동안에 중심구간의 언제높이가 속 높았다고 자랑담아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우리의 눈앞에 공사장의 벅찬 현실이 펼쳐진다. 혼합물을 실은 자동차들이 뒤이어 오르고있고 굴착기가 분주히 팔을 움직이며 혼합물을 옮겨놓는다. 이에 뒤질세라 타임공들이 진동기를 더욱 열심히 틀어잡고 뒤편 콘크리트기공을 다그친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웅성웅성 언제가 솟아오를듯하다. 우리는 혁명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언제건설에서 멀지 않아 선군시대를 빛내는 또 하나의 창조물로 솟아올라 자기의 위용을 높이 떨칠 희천 2호발전소의 모습을 그려본다.

### 2면에서 계속

이것은 혁명상 우세한 직들의 공격기도를 비면에 파탄시킬뿐 만 아니라 직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며 인민들에게 더욱 큰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근거지를 보위하고 전 동무들은 다음날의 새로운 전투준비를 하고 습격임무를 받은 동무들은 그날밤에도 토성촌과 와룡촌, 재피포를 떠났다.

습격조원들은 적동치구역에 있는 공작원들을 통하여 적들이 로와 요원들을 배치한 장소, 놀들의 요원들 그리고 적들의 동향 등을 먼저 탐지하였다.

우리는 토성촌에 주둔한 적들이 이날 밤에 우리 유격근거지에 기여들려고 《돌격대》를 선발하여 준비시키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와룡촌, 재피포 등의 적들을 장수까지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최종반으로 《토벌》전략을 강화하기에 발판하고있었다.

우리 습격조원들은 각기 자기들이 담당한 적의 숙영장소로 향하였다.

제1중대장을 책임자로 하는 습격조원들이 목적하고 간 토성촌의 적숙영장소에는 여러개의 큰 천막이 있었는데 보초가 그 주위를 돌고있었다.

기회를 노리고있던 아군습격조원들은 매마침 직들의 숙영장소에서 나오는 특무 한놈을 체포하여 그놈에게서 직들이 지금 근거지를 공격할 시간을 앞두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놀들이 일어날 시간

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았다. 습격조원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 2-3명의 나누어져 매개 천막들로 대담하게 쳐들어갔다.

우리 동무들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떠들대는 적보초병놈을 제발리 제베버린 습격조원들은 천막마다에 몇개씩의 작탄을 뿌리대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급히 천막에서 물러나 멀쩡감치에 엎드려 총을 겨누었다.

그는 밤의 정적을 뒤흔들며 천막마다에서 작탄들이 터지고 직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개중에는 비명을 지르며 천막밖으로 기여나오는 놈들도 몇몇 있었으나 아군습격조원들의 사격에 의하여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되었다.

와룡촌, 재피포 등지로 나간 아군습격조원들도 숙영중에 있는 직들을 각각 통쾌하게 소멸하였고 직들의 포진지와 탄약지장소 등을 파괴소각하였다.

2000 : 80, 포와 비행기 : 둘과 작탄과 구식보총! 그러나 우리에게 혁명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수 없다. 우리에게서 직들이 떠벌이는 어떤 무기와도 비할수 없이 위력한 무기가 있다. 수평을 중심으로 하는 당파적인 정쟁을 통일단결, 자기 조국을 보위하며 혁명투쟁을 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결단과 충진하는 혁명적기세, 바로 이것을 그 어떤 천막자무기나 로켓무기보다도 더 강력하며 어떠한 침략자도 격멸할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물고기생산기지

창립 10년을 맞이한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세 수도시민들을 위한 물고기생산기지로의 자랑스러운 자욱을 새겨는 력사의 날들을 긍지높이 들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발전소에서 나오는 비범함을 이용해서도 배기를 부를수 있습니다.》

물고라날리는 못가의 분수, 하늘색지붕을 쓴듯이 생긴 건물들, 100여개의 야외양어못들과 수십개의 실내못들...

공장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정이 번쩍 들게 꾸러놓은 것들은 종지만 해마다 물고기생산이 늘어났을 자랑증의 자랑이다. 하기에 공장을 돌아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난 우리 공장에서 해마다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대동강기술에 동영양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서고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것은, 물고기먹이보장체계와 시민들을 위한 정열한 물고기공급체

계가 세워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인민군인들이 건설한 이 한 메기공장을 찾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메기공장은 온천물을 리용하는것도 아니고 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것도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메기공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메기공장이 건설되었다. 메기공장이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은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이름을 《평양메기공장》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시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평양메기공장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한 열매를 실었다. 대동강기술에 동영양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서고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것은, 물고기먹이보장체계와 시민들을 위한 정열한 물고기공급체

계가 세워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대동강기술에 동영양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서고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것은, 물고기먹이보장체계와 시민들을 위한 정열한 물고기공급체

계가 세워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인민군인들이 건설한 이 한 메기공장을 찾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메기공장은 온천물을 리용하는것도 아니고 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것도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메기공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메기공장이 건설되었다. 메기공장이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은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이름을 《평양메기공장》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시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평양메기공장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한 열매를 실었다. 대동강기술에 동영양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서고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것은, 물고기먹이보장체계와 시민들을 위한 정열한 물고기공급체

계가 세워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대동강기술에 동영양화력발전소의 비범함을 리용하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이 일떠서고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것은, 물고기먹이보장체계와 시민들을 위한 정열한 물고기공급체

### 평양 메기 공장 에서

가 없다고 자랑하곤 한다. 그뿐이 아니다. 종자문제를 해결하고 메기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사실 종자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종자메기를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만 했을뿐아니라 메기생산 산도 지극히뻘늘일수 없었다. 종자메기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공장에서서는 그전보다 품을 적게 들이면서 해마다 메기 생산을 늘이고있다. 올해에도 공장에서 많은 종자메기를 생산하여 여러 메기공장들에 보내주였다.

메기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공장에서는 종자메기생산과 관련된 아니라 달개우기와 새끼메기, 비육메기관리, 물곰, 온도보장, 먹이공급 등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여 메기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우덕 자랑스러운것은 비육못으로 리용하던 수십개의 실내양어못을 새끼메기못으로 전환하고 겨울철에도 야외에서 비육시키는 기술을 늘인것이다. 또한 공장에서는 비육메기 생산을 집약화하여 한계 못에 서만도 많은 메기를 생산하고있다.

먹이공급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졌는것도 이 공장의 자랑이다. 가공업면에서는 분

증명되었다고 하시면서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사실 종자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종자메기를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만 했을뿐아니라 메기생산 산도 지극히뻘늘일수 없었다. 종자메기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공장에서서는 그전보다 품을 적게 들이면서 해마다 메기 생산을 늘이고있다. 올해에도 공장에서 많은 종자메기를 생산하여 여러 메기공장들에 보내주였다.

메기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공장에서는 종자메기생산과 관련된 아니라 달개우기와 새끼메기, 비육메기관리, 물곰, 온도보장, 먹이공급 등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여 메기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우덕 자랑스러운것은 비육못으로 리용하던 수십개의 실내양어못을 새끼메기못으로 전환하고 겨울철에도 야외에서 비육시키는 기술을 늘인것이다. 또한 공장에서는 비육메기 생산을 집약화하여 한계 못에 서만도 많은 메기를 생산하고있다.

먹이공급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졌는것도 이 공장의 자랑이다. 가공업면에서는 분

쇄기, 혼합기, 먹이성형기, 초미분쇄기 등 여러가지 가공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영양가 높은 먹이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보편 불꽃물, 들으면 들수록 그 어느것이나 감안이 절로 나오게 하는 공장일진대 어찌 메기생선이 더욱 오르지 않을수 있나.

하기에 공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을 두 개주고하시라고 열을 주시면 백, 천을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오늘의 전면을 안아왔다.

그렇다. 몹소 메기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는 문제부터 먹이보장 생산된 메기공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대동강기술에 이런 자랑스러운 전편의 새 모습이 펼쳐져 날이 갈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것이다.

오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메기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되도록 결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시길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명령을 자랑한 생산성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분사기자 김창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미술은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그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통일적으로 구현하고 수백만 근로자료를 혁명고 건설로 불리워주는 위대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지난 5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꽃》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자리잡은 윈용예술박물관에서 진행되게 된다는 사실은 서방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껏은 지난 시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가 열린 때도 있었지만 조선미술작품의 국보작품들,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애는 장군님의 영상이미가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페르 뇌베르의 《매가 왔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꽃》이란 주제를 정치적인 발표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서방의 사상적전선에서 다른 현실의 영상을 완전히는 아니라 해도 얼마나 자주 의식하는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 문화와 판계를 맺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방의 창작자들이 이 작품들과 그 배경에 대하여 의욕없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 서유럽의 한복판에서 힘있게 파시된 주체미술의 위용

## 오스트리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성대히 진행된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

안, 예술영화가 출품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자리잡은 윈용예술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미술전람회는 오스트리아를 뒤흔들어놓았으며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전람회는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선의 참모습을 서유럽의 진보적인민들에게 뚜렷히 보여주었으며 력사의 반동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패배와 좌절을 모르는 영웅조선의 백승의 비결을 세계에 다시한번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꽃》

단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정세, 문화계, 사회계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인사이며 소문난 건축가이기도 한 그가 왜 조선미술전람회를 다른 곳도 아닌 서유럽 한복판에서 펼치게 되었는가? 그 명칭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서방언론계가 전람회 개최를 두고서 수렁님과 조국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판공지가 어떻게 될지 좌우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 문화와 판계를 맺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방의 창작자들이 이 작품들과 그 배경에 대하여 의욕없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 파문을 일으키며 성대히 진행된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

《수령님과 농민》, 《장군님은 어디에 계신가》, 《한때는 우리 나라의 국보작품들이 대륙을 넘어 머나머나 서유럽에서 력사적인 전람회를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대답을 추측하는 걸로 자신들이 주저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와 서유럽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추측의 시정일만은 힘있게 있었다. 전람회가 진행된 오스트리아

### 《조선미술 원을 뒤흔든다》

《조선미술 원을 뒤흔든다.》 《조선이라는 큰 돌이 유럽복판에 떨어졌다.》 이것이 우리 나라 전람회 개막 전 일본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답이기도 하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원은 흥분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다. 서방의 한복판 안에서 일어나 파문은 서방의 언론계, 사회계, 문화계, 민심을 들끓게 하였다. 이처럼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나리라고 주최측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사실 윈용예술박물관의 열려서 이처럼 큰 규모에서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주최한 전람회는 없었고 오스트리아정부가 고위인사들과 문화계인사들 등 700여명이 참가한 우리 미술전람회개막행사처럼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그러나 개막식만 끝나고 밖에서는 《신문》 호사건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전선짜야가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고 노베르판상과 전람회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람회가 개막된 후 전혀 판이한 모습이 펼쳐졌다. 신문 《데르 슈타트》 등 오스트리아의 출판보도물들은 물론 영국 BBC방송, 미국신문 《인더나수일 헤럴드 트리뷴》을 비롯하여 서방언론계가 력적 축사였다. 참관자

##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

이번 전람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과연 어떤분이신가, 우리 인민이 어떻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그토록 흠모하고 따르는가를 서유럽의 인민들에게 다짐을 촉구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조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답을 준 특기할 계기로, 서방의 외무권 선전에 대한 호된 타격으로 되었다. 《특징은 국가의 창조자이며 영원한 주적이며 김일성주석에 대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구체》한것이요 《사실주의적이며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예술, 형식과 내용에서 인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예술...》이라고 널리 소개된 우리의 미술작품들은 사상성에 서뿐 아니라 예술성에 있어서도 주체미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미술작품 《옹헤야》에서와 같이 유화의 그 어떤 기법으로도 살려낼수 없는 풍동감 등을 생동히 살려낸 조선화의 독특한 우월성, 유화 《대흥산의 저녁》과 같이 유화의 밝상지인 유화의 대가들도 무색케 하는 높은 수준에 이른 조선의 유화... 참관자들마다 조선의 미술과 건축발전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오늘 서방에서는 추상미술이 범람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력과 미개해 없다는 것이 서방미술전문가들과 사람들의 견해이고 고민이기도 하다. 국소수 사실주의 미술이 남아있다 해도 제나를테라고의 모양이지 진정한 모습이란 찾아볼수 없다. 하다면 현대미술의 참된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내용과 형식수준에서 사실주의미술의 규칙》, 《참된 사실주의미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상미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커다란 타격》, 《진정한 사회주의사실주의 작품》...

## 은하수 《10월음악회》

### 성황리에 진행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나게 장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지함을 더해 주며 은하수 《10월음악회》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백승을 펼쳐는 우리 당에 대한 열렬한 신뢰와 끝없는 칭송, 당을 따라 신군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맹세가 맥박치는 음악회장은 관람객들로 만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당, 무력, 정권기반, 성, 중앙기관, 인민군인들, 대학생들,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설화와 나라 사랑, 민족기억 2중주 《비날로 삼천리》, 남성 5중창과 합창 《우리들의 사랑》, 관현악 《웃음꽃이 만발했네》를 비롯한 여러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

##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 넘치는 훈련장

###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을 찾아서

중국팀이 우승을 장담하여온 몸무게급이었다. 지난해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중국선수가 우승하였다. 김은국선수는 이번까지 국제경기는 두번했다. 그것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었다. 비록 국제경기 경험은 적었지만 이번에는 그는 세계적인 력기경기자들의 대결에서 어머니당이 키워준 무비의 담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들어올리기경기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첫번째와 두번째들이 자기자기를 신성한 무게를 보기에 성공시켰다. 경기기록은 김은국선수가 세번째들기에서 14.6kg를 끝내 성공시키지 못했으므로 하여 두번째들기 기록만으로도 이 세부종목에서 김은국선수의 우승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세충천하여 세번째들기에 나가 단번



## 제 41차 예술인체육대회 진행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제 41차 예술인체육대회가 3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창작자, 예술인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해마다 열리는 체육대회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화를 파시하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자립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경기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창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돐을 승

## 과학기술자료 몇가지

다목적 태양열온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네르기센터에서 태양열을 리용하여 난방과 집적성, 물고기, 메탄가스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온실에서 나오는 폐열물을 재리용하여 수익성을 높이며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다목적 태양열온실을 제안하였다. 이 온실의 특징은 온실안에 서 생산생물과 소비생물, 분해생물사이의 물질순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남세배배장과 집적승우리, 메탄가스양조, 양어못 등을 집약화하여 배치한것이다. 또한 뒤지붕의 경사각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고 온실 내비와 통나무줄기와의 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으며 빛반이 면은 빛투과물의 감소를 고려하여 공중식기로 한것이다. 공익말이벌레를 없애는 방법 농업과학원 평안북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 공익말이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박사 김희홍, 실장 박해인등

##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서 25일 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중국 로명성인정부, 인민해방군 로명성군구, 심양시인민정부, 로명성공안청 등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으며 우리 나라 총령사와 평사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로명성인민정부 부성장병지장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60년전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가극의 기치높이 그들 부당당히 압록강을 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소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어깨걸고 함께 싸워 가렬적

## 합정북도대흥판리국 학습강사 파동선동무

이처럼 귀하는 노력이고 그는 짧은 기간에 그 어떤 강 의도 손색없이 훌륭히 진행할 수 있는 학습강사로 준비될 수 있었다. 그는 학습강사활동에서 좋은 점은 사회주의애국주의의 교양을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그는 강의에서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쟁이고 조국의 부름에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는것을 학습강사 선원들에게 심어주어 그들이 높은 애국적열의를 갖고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하여 이바지해나가도록 적극 이끔어주고있다. 합정북도대흥판리국이 오늘처럼 번듯하게 꾸려지고 해마다 생산계획을 어렵게 이룩하여 승리하게 카드로 만들어놓은 공로가 컸다. 그리고 도에서 진행하는 학습강사의 날에 언제나 성실하게 참가하여 노범적인 학습강사들의 경험을 따라배웠으며 신규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판공 있는 교수들의 강의방법과 모 리를 리득하기 위해 아글라글 애였다.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 베이징제 5중 학교 《김일성반》명명 6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가는 조중전선학회 중앙

## 11월 중 지기 현상

11월에 일기와 기라 지구 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21일, 23일, 28일, 29일, 5일, 8일, 12일. 본사기자

본사기자 정영화, 본사기자 오철룡, 본사기자 황철웅







